



M A T H E T E S

42

2018. 10. 21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 55:8)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은석교회
담임목사 신 윤 식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053) 421-9049 010-3323-9049



사탄의
유혹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열매

머리

고전 11:2-5



흔히 ‘본말이 전도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거나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뀐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 사회에서 많이 목격하거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경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성경 내용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 대해서도 본말이 전도된 해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울의 여성관에 초점을 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3절)라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7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8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9절)는 등등의 내용을 두고 바울이 교회 내에서의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바울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바울을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와 헬라 로마의 분위기를 따라 여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남자에게 복종시키는 성향의 사람으로 말하는 반면 오히려 반대로 여자의 지위와 역할을 남자에게 매이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두는 일종의 여성 해방론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여자에 대한 내용이 일관

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하여 고전 14:34,35절에서는 여자더러 아예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까지 말합니다. 이 외에도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의 여성관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전 11:12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말미암아 났다고 하고 갈 3:28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브리스길라, 비비, 유오디아, 스투게 등등의 여러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바울을 여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성 해방론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여자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늘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여성관, 또 어떤 경우에는 여자에 대한 자유로운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할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 문제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가 여자 안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로 목사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는 두 부류 모두 바울의 말을 인용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바울의 가부장적인

말을, 찬성하는 사람은 그와 상반된 또 다른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각기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여성관은 아예 우리가 관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을 포함하여 앞에서 언급했던 여자에 대한 바울의 모든 말이 바울의 여성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의 여성관을 보여주는 말이고, 우리도 바울의 말에 따라 여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거부장적인 태도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태도입니까?

분명 여자에 대한 바울의 말은 문자적으로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전자와 후자가 다르기에 모호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 증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관적으로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남자에 대한 말이든 여자에 대한 말이든 바울의 관심은 복음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내용으로, 또는 여자에 대한 내용으로 복음만 전하는 것이지 신자로서 여자에 대한 생각이 어떠야 하는가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율법과 연결되어 행해지는 유대인의 전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전통이란 단어 자체에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과 연결된 사람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두고 바울이 칭찬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살후 2:15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고, 3:6절에서도 **“형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조상 때부터 관례적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에 전하고 전달해준 그 무엇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바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나온 참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바울이 받아 교회에 전달한 것을 두고 전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가 행하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킴으로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전통은 주께로부터 나와 전해진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께로부터 나온 성찬식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되기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가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전통은 잘 지켰지만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적하는 여자와 남자의 문제는 주

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문제로 연결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시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머리라는 단어를 다스리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 즉 주인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주인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머리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머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머리는 다스리고 지시하는 위치의 존재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지시하는 위치의 상하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 6: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습니다. 뜻은 머리로부터 나오며 몸은 뜻에 따라 행합니다. 이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남자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고 여자는 남자의 뜻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

만 남자 역시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기에 남자도 여자도 결국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머리라는 말에서 전달받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부름 받은 신자에게는 자기의 뜻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머리의 의미라면 실제 우리의 신체인 머리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쓰지 않는 문제로 교회를 책망합니다.

4.5절을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고 말합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책망을 하는 내용인데, 무엇보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든 쓰지 않던 관심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교회 문제에서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맞고 틀리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분파, 소승, 음행, 혼인, 우상 제물 등의 문제에서 ‘이런 행동은 나쁜 것이니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행동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남자가 머리를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 여자가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책망 하는 것은

사실 바울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바울의 가부장적인 여성관에 대해 초점을 두어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말쑥드린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해석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도 머리에 무엇을 쓴다면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지 않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의 말에 따르면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와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전하여 갖게 된 전통이 아니라 당시의 헬라사회의 여성관에 의한 문화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단지 헬라 사회의 문화였다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행동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자 하는 이유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면 지금의 기독교는 카톨릭처럼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자 한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을 남녀 차별, 즉 남성에게 의해 지배 받고 다스림 받으면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라는 당시의 문화적 의식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 3:28절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는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오해하여 여자도 남자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여자의 표시인 머리에 쓰는 것을 거부하고 기도와 예언을 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남자에게 지배 받는 것을 거부하고, 여자로서 남자와 동등한 힘과 권리를 갖겠다는 것에 뜻을 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여자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에 실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자 하는 것에는 내가 나의 머리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속성이기에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해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흘린 피 앞에서 자신은 죄로 인해 죽은 자이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자로서의 가치를 찾기 위해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전능자의 공의

(75강)

욥 34:16-20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욥 34:10-12)는 말에서 그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엘리후의 생각은 맞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어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 9:8).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아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시 99:4)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나 존재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세상 현실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부정, 부패, 불의로 만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계속되어 온 현실입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행태, 그리고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때로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이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의로 다스리시고 공의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온 자신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욥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공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심정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후의 말을 오늘 우리를 향한 말로 받아들이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수긍할 수 있습니까?

엘리후는 14, 15절에서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욥의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후는 욥 개인의 문제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지켜지고 다스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고관이며 부자라 해도 죽음 앞에서는 가치 없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후의

말은 인간의 존재를 보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시각에서 본다면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그 공의에 의해서 욥 또한 흠으로 돌아갈 무가치한 존재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시각에서라면 엘리후가 욥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18-20절의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낫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는 말도 자극히 타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시기 또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로 일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기에 불의의 행위를 따라 갔으나 다 함께 죽어 흠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말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의를 세상에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인가?’ 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만 다스리신다면 세상이 존재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가 존재하는 세상은 세월이 얼마큼 흐른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이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진작 심판을 받고 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분노하는 그 순간에도 욥은 물론이고 엘리후도 살아있을 이유,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게 보면 엘리후는 사람의 죽음에서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긴 하지만, 그 공의에 의해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심판이 주어지고 죽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를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여인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서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판단 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밀면서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는 말을 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가 비록 모든 사람이 흠으로 돌아가는 세상 이치에서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해도 자신이 누구인가? 에 대해서는 미처 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공의로 일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면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이고 공의가 만족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공의의 요구를 예수님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할 택한 백성은 용서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난 참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읍처럼 고난을 받던 받지 않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것입니

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불의한 자가 편인함을 누리는 세상 현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세우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현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봅니다. 그것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도 공의를 통하여 이루시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흠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공의의 전부가 아님을 모른 것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욥이 자기 말을 취

소하고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 해도 심판의 존재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도, 엘리후도 욥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는 욥이 교만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 곧 죄 없는 의인이라는 증표는 분명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복음에서 어긋난 말을 해도 묵인하고 지나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당연히 복음에 일치된 고백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증거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십자가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법 (88강)

출 21:12-17

율법이 주어지면 드러나는 것은 죽은 자로 존재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서 자기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기대하며 환상을 좇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환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간에 대한 곡해입니다.

인간의 곡해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율법이 하는 일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

라 죽음이 인간의 현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사망이라는 자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 율법을 아는 것이며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애당초 없습니다.

물론 신 28장 등에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

을 행하는 방식으로는 복이 이를 수 없고 오히려 저주의 존재일 뿐임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간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오류와 왜곡에서 건져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죽인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 사람들은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악한 행위로 보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지 않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 부모를 시시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불평 또한 현재의 힘없는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부모를 치고 저주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인간의 불의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서 모든 현실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거부

하고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냐" (12절)**라는 법에 대해서 대개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대한 분노나 미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만든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에 대한 무서움 때문일 뿐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분노와 미움 때문입니다. 것처럼 자기 분노와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제단에 있다 해도 잡아내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에서는 제사가 행해지며 제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현장입니다. 그러한 제단에서도 잡아내려져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인간은 법 앞에서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죽은 존재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라는 말을 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곳을 정하여 그리로 도망하면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으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실수로 죽게 한 사람의 가족의 원한과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곳, 도피성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한 살인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살인자가 된 그 사람에게 살길은 도피성인 것이고 도

피성을 자신이 살 곳으로 바라보고 도피할 자도 하나님에 의해 살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자가 아닌 사람에게 도피성은 그의 삶에 전혀 필요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도피성이 필요한가?'입니다. 그 말은 '나는 살인자인가?'라는 뜻이 됩니다.

법에 대해서 인간은 지킬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편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인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인하고 도둑질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인간성에 대해 아무 가능성을 두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신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며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인간을 사망으로 끌어 갑니다. 사망이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죽음의 법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죽은 자임을 사실화 하는 죽음의 법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착각을 이용한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죽음의 존재인 인간에게 환상을 갖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자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형벌에 해당되는 운명일 뿐입니다. 이 운명은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불우

한 이웃을 돕는 봉사의 일에 매진하며 구제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할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존재'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백성으로 세상에 남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능성으로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무능함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주께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렘 4:22절에 보면 **'네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롬 7:18-19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자신에 대해 한탄합니다.

우라에게 이러한 자기 한탄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선을 행하고자 한 내가 무지한 자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 받은 신자의 실상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과 행함에 선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취지는 인간이 죽음의 존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고 법에 굴복하는 것은 자신이 죽음의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음으로 감사하는 그가 신자입니다.



제 서재에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두어 달 전에 순천 어머니 댁에 방치되어 있는 어항을 가져와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바쁘게 지내는 것을 아는 동생은 어항 청소하고 물고기 관리하려면 신경 쓰이고 일거리 생긴다며 만류하기도 했는데 청소하기가 힘들 정도로 큰 어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없는 호기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항을 가져와서 수돗물을 채우고 다음날 마트에 가서 구피 두 마리를 마리당 이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어항을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여동생이 제게 준 팁이 있습니다. 키우기 쉬운 구피를 구입할 것과 배가 불룩한 것을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배가 불룩한 구피는 금방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동생이 준 팁에 따라 구피 두 마리를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배가 불룩한 것으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구피 두 마리를 어항에 넣은 다음날 아침에 먹이를 주고 점심에 다시 먹이를 주려고 어항을 들여다봤을 때 제 눈이 동그아졌습니다. 물 위에서 조그만 새끼 물고기들이 꼬물꼬물 헤엄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구피가 새끼를 낳았네요. 새끼 낳는 장면을 보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구피를 키우며 알게 된 것인데 구피는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 어종입니다. 이것을 '난태생' 이라고 하는데 알이 배속에서 부화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동생의 팁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네요. 마치 황재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몇 마리인지 세어보려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세는 일이

어렵네요. 대강 스물 네 마리였습니다.

새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보니 가장 먼저 어미와 떼어 놓아라 합니다. 어미가 잡아먹기 때문이라네요. 적당한 도구가 없어서 생수 페트병에 일주일 정도 따로 두었다가 어항에 넣었는데 그레도 몇 마리가 어미에게 먹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 열 여섯 마리 정도 됩니다.

현재 어항에는 나중에 더 구입한 두 마리를 포함해서 구피 어미 네 마리와 새끼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청소용 물고기라고 바닥에 떨어진 찌꺼기를 먹는 물고기 네 마리도 있습니다. 이들 턱분인지 바닥이 처음보다 더럽지가 않습니다. 어항 청소도 힘들거나 번거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요령이 생기니까 깨끗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됩니다.

요즘은 어항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2센티 정도 자란 새끼들과 어미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항이라는 갇힌 세계에 있으면서 갇힌 것을 모르는 것이 마치 세상이라는 갇힌 세계에 살면서도 갇힌 것을 모르는 인간 같다는 생각.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친다고 하는데 정작 물고기는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말쑥 안에 있는 신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 등등입니다. 새끼들이 다 자라 어미가 되면 어항이 뽕뽕해지겠지요. 어항이 좁아지면 원하시는 분에게 분양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 주보에 실린 시의 저자는 장 집사님입니다. 제 글을 읽다가 쓴 시라며 보내주신 것인데 저만 보라고 보낸 것은 아니지 싶어서 동의를 구하고 주보에 실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분들도 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작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주보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이 주보를 보시는 외부인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소식

1. 세상은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어떤 형편의 인생을 살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기에 세상 것으로 평가될 인생이 아님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풍선입니다

장영래

나는 풍선입니다
세상을 향해 날리지 않으려 버립니다.
나에게 믿음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내 실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없음에... ..

나는 풍선입니다
세상에 따라 이리저리 날립니다.
나를 놓지 않는 분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풍선의 끈을 놓지 않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 ..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입니다.

예배시간안내

주 일 오전	11:00	주일학교	13:20
주 일 오후	14:30	수 요 일	19:30

주일 오전예배

AM 11:00

인도/설교
신유식 목사

목상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67
교독문	42(사98편)
기도	이성희 장로
찬송	90장
성경봉독	고전 11:2-5
설교	머리(75강)
기도	설교자
찬송	212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 찬송	7장
* 축도	설교자
다음주 기도 : 김종권 장로	

주일 오후예배

PM 14:30

인도/설교
신유식 목사

목상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91장
기도	김정덕 집사
찬송	179장
성경봉독	욥 34:31-37
설교	엘리후의 요구(76강)
기도	설교자
찬송	287장
주기도문	다함께
다음주 기도 : 조길옥 권사	

수요일예배

PM 19:30

인도/설교
신유식 목사

목상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70장
기도	다함께
찬송	313장
성경봉독	출 22:22-27
설교	눈은 눈으로(89강)
기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함께